

buddhanews.com

#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도 마음을 아꼈다 뭐 하느냐!

## 25면에서 계속

매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이 마음 안의 중생들도 그렇게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서 선자에게 기대를 걸고 지금 이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갔을 때 바로 내 이 소임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파가 잘못됐다면 바로 내 한생각에 온 누리의, 한 몸을 온 누리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온 누리의 발끝, 손 끝마다 대뇌를 통해서 전부 무전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한마음이 돼 가지고선 거기를 개척을 해 나갑니다. 잘못했다면. 그러는데 어찌 병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남까지 괴롭게 하면서까지 웃을 벗어안 할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에도 수억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것은 내 한생각, 즉 말하자면 선장에 달렸다는 점,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업이 있느냐, 인과가 있느냐, 또는 윤회에 말리느냐 유전성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한생각에 얽여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연에 따라서 업보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잘하고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어른이 된 사람도 없으며, 처음부터 배워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 사는 도리에 따라서 사람은 망가질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생각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방향을 나침반을 잘 봐서, 내 이 몸뚱이의 중생들이 한 배를 타고서 수억이 있으니 한 대표인으로서, 선장이 돼 가지고 내 중생을 잘 거들 줄 알아야 남의 중생도 거들 줄 알고, 남의 중생도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도 중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한데 합쳐 있기 때문에 대표인 사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중생들이 각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입니다. 그러나 그 도리를 안다면 이 일체 만물만생이 될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인 것입니다. 어떤 식물 하나도, 동물 하나도, 돌맹이 하나도 자기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 모든 것이 따라 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따라 주기에 우리는 한생각을 할 때에 우주와 더불어 일체 만물만생이 한생각으로 그냥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야 한 손을 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 주장자를 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주장자를 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모든 게 개화가 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에 우리는 따르면서 그 불씨를 탁 들고선 앞장서 줘야 할 이 스님네들이 필요하고,

또 그 앞장서는 스님네들을 뒤따라야 하는 여러분도 알아야 뒤따르지, 모르면 뒤따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쓰라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끔찍리면서 밟히면서 피를 흘렸던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대로 이 집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만든 것도, 이 내 몸이라는 법당을 만든 것도 그 인연에 따라서 그 생명이 한데 모아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인과로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 바로 이것은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이라면 너 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어떤 한 도량에서 소임 맡아 가지고 나

분들은 오히려 좀 쉬운 거 같아요. 우리가 병만 낫자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일이 잘되자고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혼자 뛰리가 되고 뛰리가 바로 자기 짝을 현실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짝은 보호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뿌리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그것은 도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의 내면의,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너를 이끌어 가는 선장말이야." 하고 여러분께 항상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어려워야 공부가 되는지요?

질문: 내가 진정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

게 공부를 하지. 그건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 나가는 경계에서 분수에 맞게, 우리나라라는 것도 있지 말고, 내 가정의 부모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지나는 것도 알아서 내가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있는 자는 더 검소해야 되고 익은 자는 더 고개를 수그러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산이 있다 그래서 마구 사는 사람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있는 사람이 사는 거나 없는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아야 하고 그 반면에, 나는 내가 안 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질 것은 데 보태는 것만 불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나라는 조건을 버린다면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믿고 밟을 수 있어요.

그 아래에 떨어져서 죽은 송장들이, 해골바가지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는다면

내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 발자국을 떼어 놓을 것입니다.

가듯, 몸 안에서 자기 간이면 간, 소장, 대장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대표인 선장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이치가 내 앞에 닥았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고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웃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니, 여러분은 믿지 않는 거는 아닌데 믿지 않는 게 왜 믿는 분들이 많죠. 주인공을 부르면서도 입으로만 불렀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되는 걸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걸요, 뭐.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 간에 처음 왔는데 한 번 일러 준 것을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 즉 급박한 사람, 이런

면 열사람을 돌아보다든가 하는 자비의 생각이 절대 안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행이 좀 된 후에는 그렇게 들겠죠. 그러나 저희가 마음이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공부 하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역경, 어려운 경계, 어려운 생활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람 사는 게 모두 천차만별로 가지가지 해어릴 수 없는 생활인데 귀찮게 어떻게 그렇게 갈거리 떨어져 살 수가 있겠소? 그러나 공부하는 것도 저 부처님을 보되 나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자기 모습과 틀어놓고 그냥 동글러서 주인공 하나로 보란 얘기도. 그렇게 하면 편리할 거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해서, 이렇게들 모두 공평치 못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경계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거야, 어렵지 않은 처지에서는 어렵지 않

집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굶어서 애쓰고 자식들이 아파서 애쓰고 부모가 아파서 자식들이 애쓰고 소년소녀 가장들, 또 자식이 없는 부모들, 노인네들을 볼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봐서 힘이 없이 도와줘라,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없으면 또 마음으로 도와줘라 이겁니다.

넣어도 넣어도 좋지 않은 마음, 그 똥똥 똥 똥 나 이겁니다. 마음 한 점씩씩 담아서 그냥 벌려라 이거야. 벌려도 벌려도 좋지 않다는 이거야. 그 마음 아꼈다가 뭐 하느냐 이겁니다. 마음을 아끼는다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가려 가지고 예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람만 안 준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통달을 못한다고 봅니다.

### 우주의 기술을 지구에 도입하려면

질문: 얼마 전 책을 보니까 우주 다른 별에는 현재 지구보다 과학문명이 훨씬 발전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우주선을 3일 만에 만들어서 순식간에 타고 와서 없애 버리고, 또 필요하

## 입 증 안 내

### 사단법인 민족 불교 조계종

본종은 내공을 중시하며 각 사암의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는 신생종단으로서 "각 시도 교구원장 및 종도의 입증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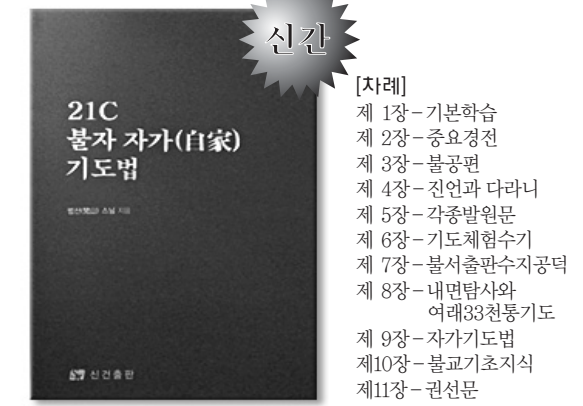
- ◆ 종 정: 법보 대종사 전북 익산 운문사 (017-328-3009)
- ◆ 총회회장: 금광 대전시 달마선원 (010-6823-0593)
- ◆ 사정원장: 해능 경북 울진 일출암 (019-579-2884)
- ◆ 총무원장: 진성 전북 김제 관음사 (011-655-0048)

입 증 서 류  
총무원 ☎ 063)546-0048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 11번지 관음사

##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量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우부 법피애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총회위원장
- 한양대불교대학 대학원교수
- 한양대불교대학 객원교수
- 한어려매리 주지
- [논문]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자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 [저서]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 한국불교여래종 입 증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증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문도를 환영합니다.

- ◆ 사찰등록 및 입증 준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사진(여권용)4매
  - 3. 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1매.
-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 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 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역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총목 육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혜택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내가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는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